■ 지방선거 핫코너

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첫 정책토론회

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첫 정책토론회가 지난 3일 순천제일대학 소극장에서 구희승·노관규·이은·조보훈 예비후보, 당직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 측에서 원도심 활성화, 무상급식,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총 3개의 공통 질문을 제시해 4명의 후보가 이에 대한 정견을 밝히고 이어 후보간 상호토론 방식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현직 시장인 노 후보는 이날 "정원박람회는 순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라고 주장했고, 구희승 후보 등 도전자들은 정원박람회 개최시기와 규모·예산·사후활용방안이 잘못됐다고 맞섰다. 앞서 후보들은 공명선거 서약식에 모두 서명했다.

강운태 "대형유통업체 규제 필요"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후보는 4일 대형 유통업체가 서구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건립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500㎡ 이상의 매장은 불허하며, 주거지역의 500㎡ 이상 매장은 사전 조정권을 강화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섭 "체계적 도시숲 정책을"

장원섭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4일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푸른 길 가꾸기 및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에 걸 맞는 체계적인 도시 숲 정책이 필요하다"며 "'도시 숲 조성관리 조례'를 제정해 '건강한 생태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 후보는 "광주시 도시 숲 전반에 대한 기본 자료를 조사하고 현황 및 문제점을 우선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영 표밭갈이 본격화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4일 오전 나주 둔치체육공원에서 열린 영산강 마라톤대회 현장을 찾아 참가자, 시민과 거리를 좁혔다. 박 후보는 이어 장성 홍길동 체육관에서 열린 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하고 광양시 광양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부활절 합동예배, 광양 매일 시장, 순천 승주지역 상가 등을 돌며 민심을 탐방했다.

주승용 "고흥, 우주산업 메카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4일 "고흥 나로 우주센터는 앞으로 항공우주 산업과 연계한 레저산업의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나로호의 2차 시험발사를 위한 발사체가 5~6월 발사 예정으로 고흥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우주항공 산업분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형 "편법 여론조사 근절돼야"

이석형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4일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22개 시·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전화 착신전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당과 사법기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일부 지역의 경우 착신전환 권유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여론조사 경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윤모 선거사무소 개소

이윤모 민주당 화순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3일 화순군 화순읍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지역민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27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軍 "선체 바지선에 올린 뒤 실종자 수색"

천안함 함미·함수 동시 인양 등 5단계로 실시

SSU·UDT 요원은 실종자 탐색·부유물 수거

군 당국은 4일 천안함 인양과 관련, "함미와 함수 부분을 동시에 인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선체를 바지선으로 끌어올려 실종자를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참 정보작전처장인 이기식 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향후 인양작전 절차에 대해 ▲작업 크레인을 4묘각으로 고정해 수중탐색하고 ▲선체에 체인을 결색(쇠줄로 묶음)해 크레인에 연결한 뒤 ▲물 위로 인양해 선체 내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선체를 바지선에 올려 실종자를 수색한 다음 ▲선체를 평택으로 이동하는 5단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인양 작전 중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특수전부대(UDT) 요원들은 침몰 지역 주변에서 실종자 탐색을 하는 동시에 선체 인양 작업 중 외부로 휩쓸려 나올 수 있는 선체 내 각종 부유물을 수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함미 인양은 88수중개발에서, 함수는 해양개발공사에서 각각 맡게 된다고 이 준장은 전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국방조사본부 등 국방부 4개 기관, 전비태세검열실 등 합참 4개 참모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10개 자문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10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민·관 전문가는 24명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민·군 합동조사단장인 박정이 중장은 "이번 조사는 과학수사, 정보 및 작전운영 분석, 폭발유형별 분석, 선체구조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정밀조사 중"이라며 "각종 의혹을 포함해 사건 원인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명하고, 필요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원을 참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후타실에 장병 5명이 머물렀던 것은 조타장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에 이 준장은 "거기엔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고, 만일 후타실 침수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면 부함장이 거기서 지휘하고 있어야 했지만 부함장은 당시 침실에 있다 구조됐다"고 해명했다.

이 준장은 사고 직후 천안함장이 22전대장에 대한 최초 보고에서 '피습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에도 "사실이 아니다"며 "함장은 '폭발음이 들린 뒤 배가 침몰했고 현재 구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군이 최근 공개한 천안함 폭발 직후를 촬영한 열상감시장비(TOD) 영상 외에 또 다른 TOD 영상 존재 여부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한 대만으로 감시구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첩감시를 하지 않는 곳"이라고 이 준장은 말했다.

박 중장은 천안함 사고 발생 시각이 지난달 26일 오후 9시15분께라는 의혹과 관련, "당일 오후 9시19분 어간에 천암함과 2함대사령부 간의 교신이 있었지만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평온한 상호 확인절차의 교신활동으로 이번 사고 관련시킬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기식 준장은 해당 교신기록 공개 여부에 대해 "모든 통신망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합조단에서 확인하면 의심할 여지 없는 자료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4일 평택 2함대에 고(故) 남기훈 상사의 시신이 도착하자 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 희생 안돼" 실종자 가족들 수색중단 요청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3일 군에 인명구조 및 수색작업 중단을 요청한 것은 구조 및 수색작업 과정에서 더이상 희생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종자 가족들은 군의 실종자 수색작업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있지만 UDT 소속 한주호 준위가 숨지고 금양98호 침몰에 이어 3일 오후 함미 원·상사실 통로 쪽에서 남기훈 상사의 시신이 발견되자 더이상 희생이 있으면 안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 소식을 접한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남 상사의 유족을 포함한 전체 실종자 가족이 모여 회의 끝에 대다수 가족의 찬성으로 인명구조 대신 함체인양으로 뜻을 모았다.

회의가 끝난 뒤 실종자 가족 협의회 이정국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생존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존가능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결정했다"며 전체 가족의 뜻을 설명했다.

침몰 사고 직후부터 실종자 가족이 부여잡고 있던 생존에 대한 희망이 꺾이면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생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음을 실종자 가족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말한 것이다.

실종자 가족은 이날 "현재 선체의 내부가 피폭의 충격과 바닷물 유입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면서 "또 다른 희생이 나는 것을 원치않고, 잠수요원이 진입할 때 희생이 우려돼 선체 내부에 대한 진입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北 개입 근거 없다" → "추측 않겠다"

美 '천안함 침몰 원인' 미묘한 입장 변화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놓고 미국 정부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읽혀지고 있다. 사고초기 만해도 "북한 개입을 추정할 근거가 없다"(3월30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고 반응하던 미국이 최근 "(사고 원인을) 추측하지 않겠다"(2일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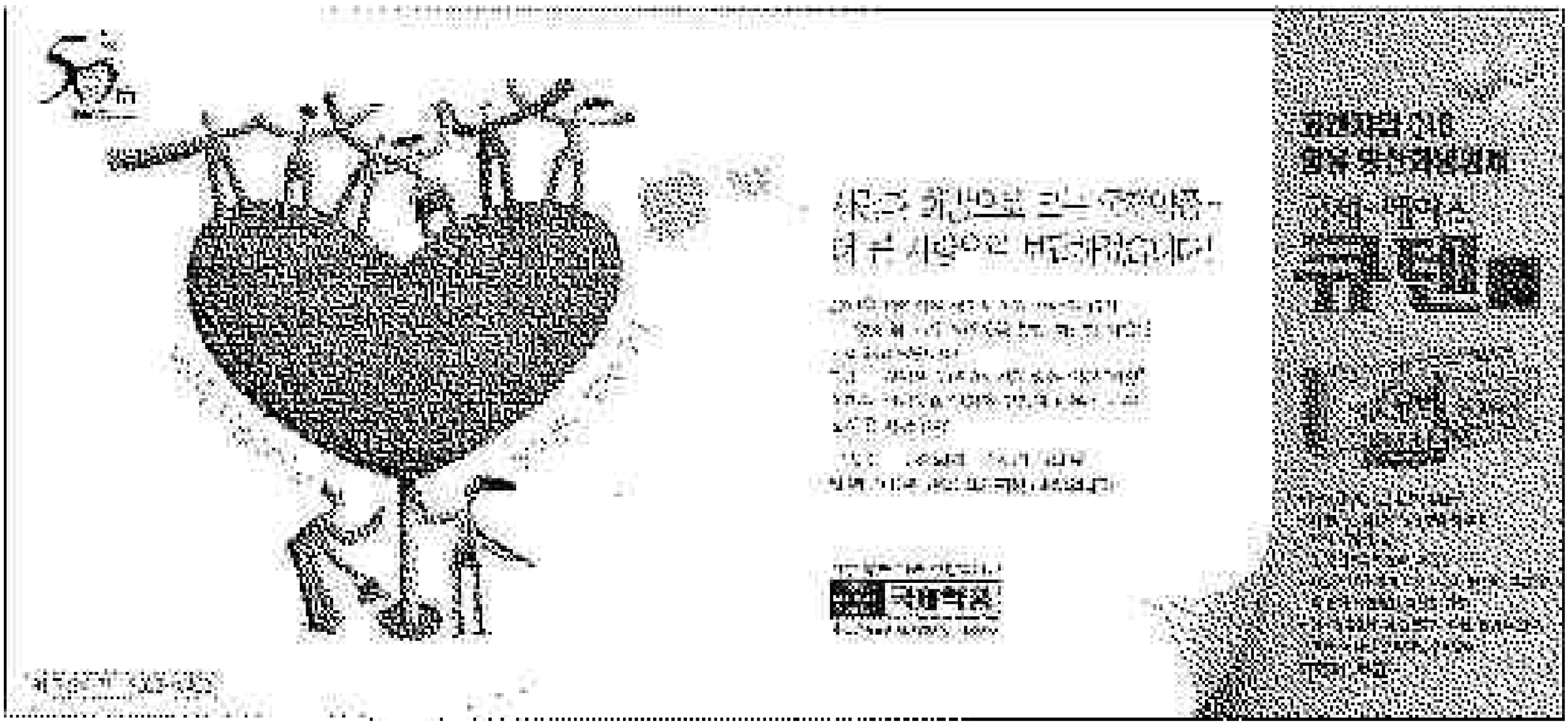
특히 캠벨 차관보는 2일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잇따라 면담한 직후 "한국정부의 (사고원인) 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군 당국이 진행중인 조사에 힘을 싣는 듯한 언급을 내놨다. 그의 발언은 비록 원론적 언급의 형식이지만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해 민감한 반향을 일으킬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내부 폭발보다는 어뢰 등 외부충격 쪽으로 군 당국 조사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민감한 국면에서 나온 미국 고위당국자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일단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 정부의 정보판단이 실제로 바뀌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에는 외견상 드러난 북한군 동향만을 근거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우리 군당국의 정밀조사가 진행되면서 미국 당국자들의 정보분석도 달라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 핵심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사고원인과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미국의 입장이라는게 있을 수 없다"며 "특별히 정보판단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캠벨 차관보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특별한 입장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한·미간의 '보폭 맞추기'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짙어보인다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사고초기 "북한 개입을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미국과 "북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리측의 입장이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한.미간 온도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진화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 등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주도하는 미국 측이 이번 사고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는 관측도 외교가에 나돌았던 것도 사실이다.

주목할 대목은 한·미 양국이 사고원인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긴밀히 조율한 점이다. 캠벨 차관보는 지난 2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내부폭발 ▲외부충격 ▲북한 소행 등에 따른 대응방향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